

[종합·해설]

李는 보수 이탈막기… 昌은 외연 확대 주력

향군서 확고한 대북관 피력, 昌 출마명분 약화 시도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가 진열 재정비에 나섰다. 무소속 이희창 후보(전 한나라당 총재) 출마 이후 흔들리는 보수층의 이탈을 막고 3자 대결 구도로의 전환에 따른 선거전략을 수정하기 위해서다.

이 후보는 일단 예정된 일정을 무기 연기하고 대응책 마련을 위한 장고에 들어갔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도 광주에서 가질 예정이었던 농업분야 타운미팅을 무기한 연기하고 개인사무실인 안국포럼에 머물며 개인면담을 갖는 등 일정을 조정했다.

이방호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당시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일 국민성공대장정 경남 대회는 그대로 진행하되 이후의 모든 일정을 전면 재조정해 위기상황에 대처하고 대책도 전면적으로 수정할 것”이라며 “이 후보가 강력한 대처방안을 구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보수층의 이탈을 막기 위한 전략 변화의 모습이 여기저기 나타나고 있다. 이 후보는 8일 오후로 예정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한군) 초청 대선후보 안보강연회를 앞두고 연설문을 일부 수정토록 측근들에게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자신의 외교·안보 정책구상인 ‘엠비(MB) 도트린’과 핵심공약인 ‘비핵·개방 3천 구상’을 폭넓게 소개하기로 했으나 보수 정체성을 선명하게 강조하는 방향으로 연설 순서와 문구를 일부 수정했다고 한 측근은 전했다.

그는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북방한계선(NLL)과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 등에 대해서도 참여정부 정책에 반대한다는 입장은 분명히 내놓을 예정이다.

이 같은 행보는 전날 이희창 후보가 기자회견에서 이 후보에 대해 “국가정책상에 대한 뚜렷한 신념과 철학이 없고, 대북관이 애매모호하다”고 비판한 대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향후 전개될 보수 적자 논쟁에서 뒤지지 않겠다는 태도로 보인다.

당 지도부와 원로들도 ‘이념’을 문제삼는 무소속 이 후보에 대한 공격과 견제에 일제히 가세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책사’ 강삼재 4년만에 컴백…실무형 캠프 구성 박차

뒤늦게 대선판에 뛰어든 무소속 이희창 후보는 우선 외연 확대에 주력을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등 거의 정당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만큼 기존 정치세력의 연합을 통해 승부를 걸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후보가 지지율을 30% 돌파를 위해서는 외연 확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정치권의 일반적 시각이기도 하다.

이미 국민중심당 심대평 대선후보가 지난 2일 내각제를 고리로 이 후보와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 고 전 국무총리를 상대로 ‘4자 연대’를 공식 제안한 바 있고, 참주인연합 정근모 후보도 이 후보에게 ‘중도보수 대연합’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자리는 마련된 셈이다.

이 후보도 7일 ‘출사표’를 통해 “헌법 개정을 포함한 과감한 정치개혁과 권력구조 개편을 통해 향후 50년 이상 지속할 수 있는 국가적 틀을 마련하기 위한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고 언급, 개헌을 매개체로 한 연대 가능성은 시사했다.

강삼재 전 한나라당 사무총장도 이 후보 드디어 위해 정계에 컴백했다. 강 전 총장은 8일 오전 이 후보의 사무실을 방문, 이 후보와 만나 도

시락을 시켜며면서 2시간 가까이 선거 대책을 논의했다.

그는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정치 조직체가 뜨기 전 며칠만이라도 수시로 회의를 열어 논의하자는 것”이라며 선대위 참여를 시사했다.

이보의 측근인 이호주 특보도 이날 “이 전 촉재가 출마선언에서 밝힌 대한민국의 나아갈 방향에 공감하고 동참하는 정치 세력뿐만 아니라 개인 인재들과 폭넓게 연대를 갖출 것”이라면서 “앞으로 캠프 내에 전략기획팀이 꾸려지면 어떤 식의 협조와 연대가 이뤄질 지에 대한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鞍에서는 김현규, 박찬종 전 의원 등도 이 전 촉재 진영에 합류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김 전 의원과 친한 대통령신당 의원은 “사실 대북관계 정도만 빼놓고는 대기업 정책, 부동산, 경제정책 등에서 상당 부분 일치하는데다 이 후보는 충청권, 김 전 의원은 부산·경남 지역에서 상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동영 “大한반도 5대 철도망 건설”

이명박 대운하에 맞불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는 8일 오전 부산 신항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륙지향형 철도 중심의 종합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한반도 5대 철도망’ 건설 공약을 발표했다.

이 공약은 한반도를 5개 축으로 나눠 총 10년간 1천175km의 철도를 건설, 철도와 도로가 조화를 이루는 종합교통체계를 구축하고 ‘부산에서 파리까지, 목포에서 베를린까지’라는

슬로건처럼 TSR(시베리아 횡단철도), TCR(중국횡단철도)과의 대륙연결 철도망을 추진해 물류산업강국으로 부상하겠다는 것.

정 후보측은 “운명박”이 아니라 ‘철도동영’이 대한민국을 살린다며 “경제성, 신속성, 환경성, 통합성 등 모든 면에서 철도가 운용보다 유리하다”며 이명박 후보의 대운하 공약을 비판했다.

정 후보는 이날 ▲동해안선 조기완공, 서해안선 조기완공, 경원선의 소요산~철원 구간 복선전철화를 통한 동해안축, 서해안축, 중부축 등 TSR, TCR 연결을 위한 남북축 대륙철도 ▲▲호남고속철 임기내 완공과 이산~김천 연결을 통한 영호남 합류철도 건설을 제시했다.

또 ▲서울~춘천~속초 등 동서고속전철화 사업을 통한 강원도 성장철도 ▲지역별 경전철과 간선버스를 투입해 30~60분 내에 고속철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지역별 연계철도도 5대 철도망에 포함시켰다. /연합뉴스

권영길 “여성채용·승진목표제 도입”

여성관련 공약 밝혀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8일 “공공기관에 여성 채용과 승진 목표제를 도입하겠다”며 여성관련 공약을 밝혔다.

권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질 높

은 여성 일자리를 확대하고 모든 일하는 여성의 안정된 지위를 보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100인 이상 기업의 여성고용률도 행정조치 등을 통해 끌어올리고 4대 보험에서 배제된 여성 농민 등의 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자녀양육과 주거안정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연합뉴스

그는 “임신과 출산시 의료비 부담을 없애고 출산휴가·육아휴직 제도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확대하겠다”며 “출산 후 3개월간 소득을 지원하고 여성건강 증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가 8일 부산벡스코에서 열린 가족행복위원회 부산·경남·울산지역 출범식에서 행복배달부들과 함께 춤을 추고 있다. /연합뉴스



무소속 이희창 후보가 대선 출마 선언후 첫 일정으로 8일 서울 월계2동 주공 1단지 한 조손가정을 방문, 소년가장 홍순철군을 위로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회 대정부질의, 李-鄭 ‘검증공방’ 변질

“다스, 美서 호화주택 불법 매입”

“鄭 재산 증식은 상속 아닌 매매”

국회는 8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 시킨 가운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했으나 상대 당 후보의 의혹을 들춰내는 정치적 공방 속에 본 회의장 내에서 고성과 산대질이 오갔다.

◇폭로 공방=신당 측은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인 BBK를 실질 소유한 데 이어 미국 미시간주의 호화주택을 불법 매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鞍에서는 김현규, 박찬종 전 의원 등도 이 전 촉재 진영에 합류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김 전 의원과 친한 대통령신당 의원은 “사실 대북관계 정도만 빼놓고는 대기업 정책, 부동산, 경제정책 등에서 상당 부분 일치하는데다 이 후보는 충청권, 김 전 의원은 부산·경남 지역에서 상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신당 박영선 의원은 “이 후보의 처남이 최대 주주로 있는 다스가 2006년 11월 미국 미시간주 노스필드에 있는 스톤리지 호수 주변에 호화주택을 구입했다”며 미국 등 기관리증 사본을 제시했다.

같은 당 정봉주 의원은 “5천200여명의 소액주주들의 가슴에 피멍이 들게 한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일쇠는 이모씨라는 이 후보의 여직원이 죄송하다”고 밝혔다.

반면 한나라당 이경 의원은 “정동영 후보는 자신의 재산 중 일실·순창 밭을 상속받았다고

주장하지만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상속으로 신고돼있지 않고 정 후보가 4살, 7살 때 매매를 한 것으로 등기돼 있다”고 공격했다.

◇‘일어버린 10년’ 논란=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지난 10년간의 경제성적표를 놓고 ‘잃어버린 10년’을 비판하는 한나라당과 이에 반박하는 한덕수 총리가 격론을 벌이기도 했다.

한나라당 이계경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은 일자리 250만개를 약속했고 12조1천억원을 들였지만 102만개 밖에 만들지 못했다”며 “홍콩·말레이시아·인도의 성장에도 못 미치는 10년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한 총리는 “지난 10년은 쳐걸한 국가부도사태를 온 국민과 정부가 합심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든 10년이라고 생각한다”며 반박했다.

그는 “1998년부터 2005년 사이에 통계를 보면 대기업에서 107만개 일자리가 줄었지만 중소기업에서 311만개 일자리가 늘었고 외환위기 때문에 580만명까지 늘어난 신불자가 260~270만명으로 줄었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호남고속철 2013년 완공 현실성 있나”

주승용 의원 이명박 공약 비판

개월 만에 호남고속철도를 완료할 수 있다는 것인데, 가능한 것인가”고 물었다.

주 의원은 이어 “같은 고속철도인데, 경부는 14년8개월에 하고 호남은 6년3개월에 완공한다는 것”이라며 “또 10조5천억원의 (호남고속철도) 공사를 앞으로 넘은 5년 만에 끝내려면 연간 2조원씩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데, 이는 건교부 예산의 11%에 달하는 것”이라며 허구성을 지적했다.

그는 “결국 2017년 완공 계획인 호남고속철도 사업을 1,2년도 아닌 5년여를 앞당겨 2013년 초까지 완공한다는 공약은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지오는 유기… 개을 난방고민 끝~

초절전형 냉난방기 편리하자!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8일 “공

공기관에 여성 채용과 승진 목표제를 도입하겠다”며 여성관련 공약을 밝혔다.

권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질 높

은 여성 일자리를 확대하고 모든 일하는 여성의 안정된 지위를 보장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100인 이상 기업의 여성고용률도 행정조치 등을 통해 끌어올리고 4대 보험에서 배제된 여성 농민 등의 보험 적용을 확대하겠다”며 “출산 후 3개월간 소득을 지원하고 여성건강 증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임신과 출산시 의료비 부담을 없애고 출산휴가·육아휴직 제도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확대하겠다”며 “출산 후 3개월간 소득을 지원하고 여성건강 증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권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질 높

은 여성 일자리를 확대하고 모든 일하는 여성의 안정된 지위를 보장하겠다”고 공약했다.

권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질 높

은 여성 일자리를 확대하고 모든 일하는 여성의 안정된 지위를 보장하겠다”고 공약했다.

권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질 높

은 여성 일자리를 확대하고 모든 일하는 여성의 안정된 지위를 보장하겠다”고 공약했다.

권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질 높

은 여성 일자리를 확대하고 모든 일하는 여성의 안정된 지위를 보장하겠다”고 공약했다.

권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질 높

은 여성 일자리를 확대하고 모든 일하는 여성의 안정된 지위를 보장하겠다”고 공약했다.

권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질 높

은 여성 일자리를 확대하고 모든 일하는 여성의 안정된 지위를 보장하겠다”고 공약했다.

권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질 높

은 여성 일자리를 확대하고 모든 일하는 여성의 안정된 지위를 보장하겠다”고 공약했다.

권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질 높

은 여성 일자리를 확대하고 모든 일하는 여성의 안정된 지위를 보장하겠다”고 공약했다.

권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질 높

은 여성 일자리를 확대하고 모든 일하는 여성의 안정된 지위를 보장하겠다”고 공약했다.

권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질 높

은 여성 일자리를 확대하고 모든 일하는 여성의 안정된 지위를 보장하겠다”고 공약했다.

권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질 높

은 여성 일자리를 확대하고 모든 일하는 여성의 안정된 지위를 보장하겠다”고 공약했다.

권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